

“北과 논의 생산적...진정한 진전 이뤄가는 중”

‘평양 2박3일’ 복귀한 비건, 강경화 외교 예방 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과 더욱 긴밀 협의 화답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마치고 복귀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남북 결과를 공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정사에서 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는 중이고 우리의 논의는 생산적이었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진정한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가 27~28일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대통령은 (북·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의 예방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한국은 긴 설 연휴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 방북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면서 “모두가 그 결과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후 일주년이 바로 오늘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지”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이번 방북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간 각급에서의 추가 조율을 통해 계속 진전을 이뤄나가지고 했으며, 비건 대표도 싱가포르 합의사항의 이행과 북

미간 신뢰 진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건 대표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대표 양자협의를 통해 평양 실무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전략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의 방북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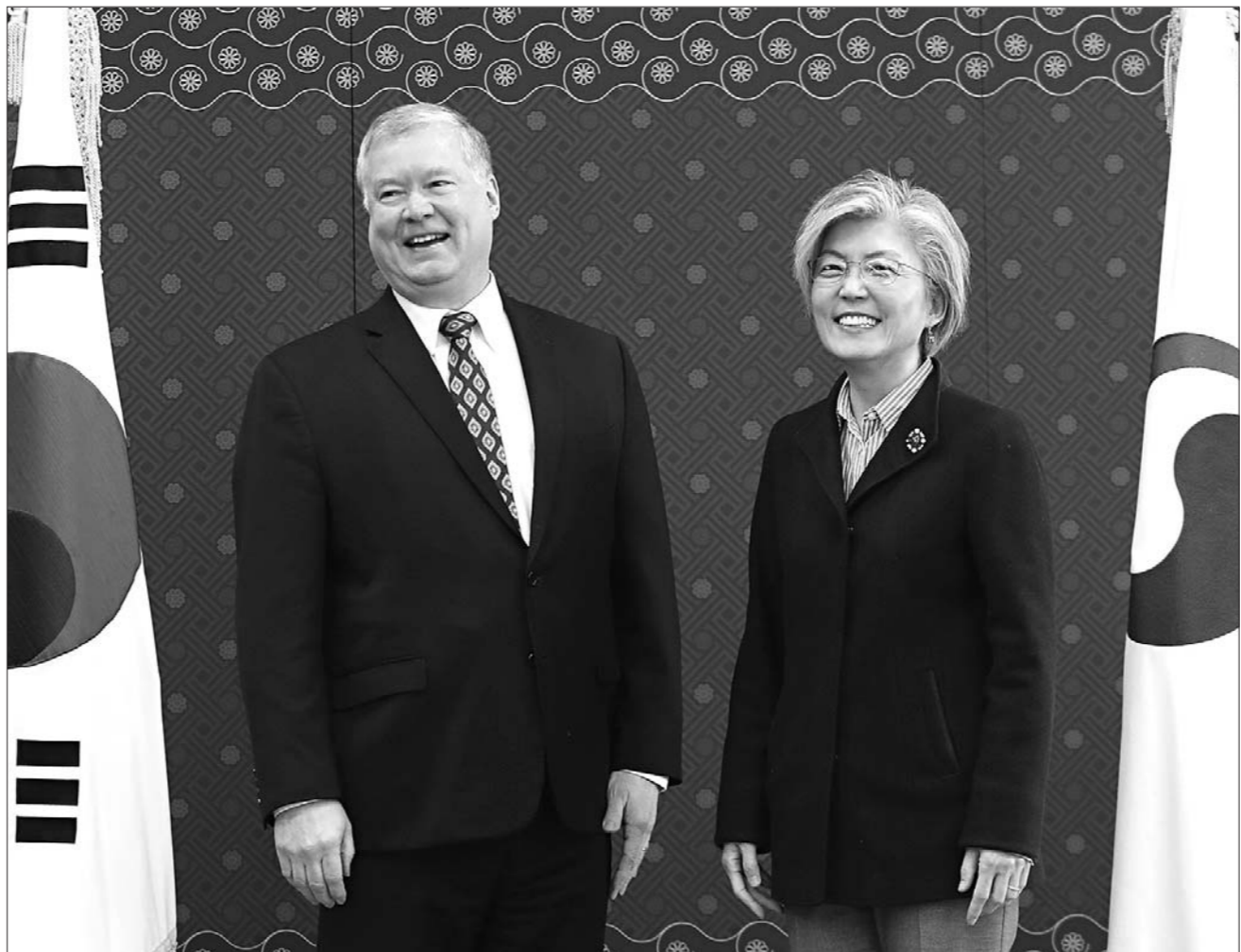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있기 전에 가지는 이번 만남은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가 북한에서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자협의 이후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 健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비공개 오찬을 갖고 한미일 3자간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상 전략과 한·미·일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북한 평양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서 개최

트럼프 “北, 김정은 리더십에 경제강국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오는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의 대표들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시간과 날짜 등에 대한 매우 생산적인 합의를 마치고 막 북한을 떠났다”면서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과 28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 평화라는 대의에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트윗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하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몇몇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나는 그를 알게 됐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적 (급성장)이라는 다

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도시를 밝히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6일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해 55시간 머물면서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상회담 장소로 미국은 다낭을 원했다,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노이가 최종 선정된 것은 평양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건 대표와 그의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조율한 결과”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사 중에는 2000년대 초 ‘6자회담’ 때 북한을 대표했던 리용호 외무상 등 노련한 북한 외교관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2차 정상회담 전 김혁철 대표와 또 만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확인 이전 다수 언론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다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 왔고, 일부 언론들은 이미 다낭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경제적인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CBS방송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 즉 북한을 세계 가장 위대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면서 “그러나 핵무기로, 현재 진행중인 핵무기(개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호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와 잘 어울리며, 우리는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美, 대북 제재완화 보다 체제보장 제시에 주력”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완화 보다 체제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엔 제재완화 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을 북한에 대가로 제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자협의 당시 만해도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유엔 제재 예외 조치로하는 데 긍정적이었지만, 제재를 한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증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한다.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종전 선언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

“김정은 진정성 의문”

美하원 외교위원장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영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북미협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으며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영겔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는 핵 역량이 존재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겔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회담을 할 가치가 있지만 반대로 김 위원장이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경우 모두에게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겔 위원장은 “그렇게 될 경우 회담이 김 위원장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겔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도 확인했다. **뉴스**

美국무부 “비건-김혁철, 정상회담 전 다시 만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3일 평양 협상에 이어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대사와 재차 만난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변인실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6~8일 평양에서 만났다”며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안수, 북미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 구축의 발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 김혁철 전 대사와 2박

3일에 걸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해당 협상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협상, 대북제재 완화 등이 조율됐을 것으로 관측됐다.

비건 대표는 일단 9일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정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2박3일 동안 이뤄진 실무협상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실무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는 오는 10일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 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

UO work **중개비용이 성과가 되는 곳** 보증금 0 / 관리비 0

유요워크 금남점 최대규모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O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샤워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남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화물 승용·합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062)522-2424** 전담 전 지역 **061)375-8824**
올바른 **062)522-2424** 전담 전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수시 재경장래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